

澤齋 金昌立의 『澤齋遺唾』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ekjaeyuta* by Chang-rip Kim

김 순 희 (Kim, Soon-Hee)*

◁ 목 차 ▷

1. 緒言	3.2 詩
2. 『澤齋遺唾』의 刊行	3.3 附錄
2.1 金昌立의 생애	3.4 跋
2.2 『澤齋遺唾』의 간행 과정	4. 『澤齋遺唾』의 특징 및 결론
3. 『澤齋遺唾』의 구성 및 내용	<참고문헌>
3.1 『澤齋遺唾』 序	

< 초 록 >

김창립은 18세에 요절하였고 그의 유고집은 洪有人, 俞命岳, 崔東標 등이 발간을 추진하여 형인 김창흡이 그것을 刪定하여 사후 1년 만인 1684년에 서사활자로 간행되었으며, 1700년에 운관활자로 다시 간행되었다. 이러한 예는 조선시대 문집 간행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 유고집의 서·발문을 쓴 인물들이 당대를 대표하는 명사들인데, 서문은 息菴 金錫胄가 썼고 발문은 文谷 金壽恒, 三淵 金昌翁, 尤庵 宋時烈, 壺谷 南龍翼, 西浦 金萬重 등이 썼다. 본고는 『澤齋遺唾』의 간행과정, 서·발문의 분석, 구성 및 내용의 고찰 등을 통해 이 유고시집의 특징과 의의를 밝혔다.

要語: 김창립, 택재유타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11년 9월 9일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20일

<ABSTRACT>

Chang-rip Kim died young at the age of 18, and the publication of his posthumous scripts was carried by Hong Yu-in, Yu Myong-in, and Choi Dong-pyo, etc. It was proofread by Chang-hup Kim, his elder brother, and one year after his death published by bookstore movable types, and in 1700 again by Ungwan movable types. Such an occasion never happened in publishing anthologies in the Joseon Period. People who wrote a preface and prologues were very well-known writers during the period. Sigam Kim Sok-ju wrote a preface, and Mungok Kim Su-hang, Samyon Chang-hup Kim, Uam Song Si-yeol, Hogok Nam Yong-ik, and Seopo Kim Man-jung wrote prologues. In this article, the publication process of *Taekjaeyuta* and its preface and prologues are analyzed, and its structure and contents are investigated to specify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Key words: Chang-rip Kim, *Taekjaeyuta*

1. 緒 言

본고는 澤齋 金昌立(1666~1683)의 유고 시집인 「澤齋遺唾」의 간행 과정과 구성 및 내용을 고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생몰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창립은 18세에 요절하였다. 그런데 그의 유고집은 사후 1년 만인 1684년에 초인되었다. 이러한 예는 조선시대 문집 간행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 유고집의 序·跋文을 쓴 인물들이 당대를 대표하는 명사들이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서문은 息菴 金錫胄가 썼고 발문은 文谷 金壽恒, 三淵 金昌翁, 尤庵 宋時烈, 壺谷 南龍翼, 西浦 金萬重 등이 썼다. 김수항은 김창립의 父이고, 김창흡은 작은 형이므로 이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나머지 4명은 당시에 명성이 높은 인물로서 이들이 요절한 자의 유고집에 이렇게 序·跋文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澤齋遺唾」의 간행 과정, 서발의 분석, 구성 및 내용의 고찰 등을 통해 이 유고시집의 서지학적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2. 「澤齋遺唾」의 刊行

2.1 金昌立의 생애

김창립은 1666년(현종 7, 丙午) 8월 22일에 서울의 北岳 아래에서 태어났다. 字는 卓爾이고 호는 澤齋이다. 택재라는 호는 김창립이 三兄인 김창흡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重澤齋라는 서실을 짓고 독서하였는데¹⁾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본관은 安東으로 증조부가 淸陰 金尙憲이고 할아버지는 同知中樞府事를 지낸 金光燦이며,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金壽恒이다. 김수항은 昌集, 昌協, 昌翁, 昌

1) 金昌翁, 「三淵集」 卷26, <金秀才傳>. ‘昌立亦於其左 作室而對之 名重澤齋’

業, 昌緝, 昌立 등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²⁾ 이들은 모두 자질이 뛰어나 세간에서 소위 ‘六昌’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처럼 김창립은 당대에 손꼽히는 문벌이었던 安東金門이라는 명문을 배경으로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은 문집의 발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는 15세에 발분하여 문장과 학문에 크게 힘을 썼다.³⁾ 18세 되던 해인 1683년(癸亥)에 한양에 천연두가 창궐하였는데 마침 明聖大妃의 장례에 참석하였다가 감염되었다. 이 병으로 인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니 같은 해 12월 26일이었다.⁴⁾

김창립은 三兄인 三淵 金昌翁의 문하에서 시를 배웠는데 김창흡은 당시 조선 시단의 구태의연한 면모를 일신하여 새로운 시의 세계를 열기 위해 노력한 시인으로서 당대의 중추적 인물이었다.⁵⁾ 김창립은 시를 배움에 있어 당시의 일반적인 학자들과는 약간 구별되는 성향이 있었다.

그의 뜻이 과거에 응시하여 명성과 이익을 취하는 데에 있을 뿐만이 아니었다. 읽은 책이 많지는 않았지만 詩經에 힘을 쓴 것이 가장 전일하여 항상 외우고 감상하였으며, 楚辭나 사마천의 사기, 고악부, 唐나라의 여러 시를 탐독하고 여기에 빠져 있었다. 이런 까닭에 그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나 글로 지어진 것이 절대로 세속의 틀을 답습하지 않았다.⁶⁾

이러한 김창립의 뜻밖의 죽음은 가족과 주변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가문의 배경이나 개인적 능력을 고려해 볼 때 크게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죽음으로 인해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실망감이 문집의 발간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2) 金昌協, 『農巖集 續集』, 卷下, <先父君行狀下>에 의하면 김수항은 부인 안정나씨와의 사이에 모두 9남 1녀를 두었다고 한다.

3) 『澤齋遺唾』 <附錄>, 行狀. ‘至十五六 便發憤刻勵 大肆力於文學.’

4) 『澤齋遺唾』 <附錄>, 行狀. ‘至癸亥冬 城內痘氣熾滿 會明聖大妃昇遐 兒隨諸生朝夕臨閣下 成服日忽搆疾歸 而痘大發 … (中略) … 竟十二月二十六日不救.’

5) 안대회, 『18세기 한시사 연구』 (소명간행, 2002), 58.

6) 『澤齋遺唾』 <附錄>, 行狀. ‘其志不但在於應科目取聲利而已也 所讀書不多 而於詩經用力最專 常常諷誦玩釋 如楚辭馬史固古樂府李唐諸詩 皆其所耽讀浸淫者也 是以其發於言論 著於篇章者 絕不踏襲俗臼.’

2.2 「澤齋遺唾」의 간행 과정

2.2.1 書肆活字本

「澤齋遺唾」은 김창립이 죽은 다음 해인 1684년(甲子年) 가을에 書肆活字로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김창립의 유고집인 書肆活字本 「澤齋遺唾」에는 김수항이 쓴 것을 비롯하여 모두 5편의 발문이 있는데, 金萬重의 발문에는 연도를 기록하지 않았고 南龍翼의 발문에 ‘갑자년 늦은 가을(甲子杪秋)’에 발문을 쓴다고 하였으니 이 해에 이 시집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창흡은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제 상자에 남아 있는 것은 큰 숲 중 하나의 싹만큼도 되지 않지만 두 세 명의 동문이 간행하여 배포할 것을 의논하여 나에게 강요하였다. 이것이 어찌 우리 아우를 살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마는 진실로 (아우의) 평생의 뜻이 썩지 않음에 간절하고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을 슬퍼하기 때문이니 내 아우를 아는 자들은 이들이다 … (중략) … 송정 갑자년 2월에 작은 형 창흡은 읍하며 쓴다.⁷⁾

김창립이 죽은 것이 1683년 12월 26일이었다. 위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창립의 사후 동문들이 유고집의 간행을 추진하였고, 김창흡이 그것을 刪定하여 이듬해에 간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의 문집 간행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그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경우이다.

이렇게 신속하게 유고가 간행된 것은 김창립의 가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김창립의 父兄들의 진술을 참고해 보면⁸⁾ 김창립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자질을 보여 큰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던 그가 18세에 요절하자 실망이

7) 金昌翁, <澤齋遺唾跋>. ‘今茲篋衍之留 未足爲鄧林之一芽 而乃二三同門謀所以印布 來強乎余 彼豈以是爲果能壽吾弟也 良以悲生平之志 切於不朽 而卒之未遂焉耳 嗟乎 知吾弟者實二三子也 … (中略) … 崇禎甲子二月叔兄昌翁泣跋.’

이 글은 「三淵集」 卷25에도 실려 있는데 마지막의 연도는 누락되어 있다.

8) 특히 김창협이 김창립의 小祥과 大祥 때에 지은 祭文에 이에 대한 안타까운 술회가 나타나 있다. 金昌協, 「農巖集」 권29, <亡弟初葬祭文>, <亡弟再葬祭文> 참조.

매우 컸을 것이다. 특히父 김수항의 슬픔은 지극했다. 김수항은 김창립의 동문들이 유교 시집의 간행할 때 跋文을 지어 애뜻한 사랑과 회한을 나타냈다.

이 시기에 김수항은 1680년에 발생한 庚申大黜陟 이후 南人들이 실각하자 영중추부사로 복귀하여 8년 동안 영의정으로 재임하고 있었으며, 둘째 형인 김창협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했을 무렵이므로 국내 굴지의 명문가로 살고 있었을 때이다. 이러한 집안의 배경이 이 시집의 신속한 간행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김창립과 동문수학한 친구들이다. 여기서 동문수학했다고 함은 김창협이 문하에서 만난 관계로서 洪有人, 兪命岳, 崔東標 등이다.⁹⁾ 여기서 주목되는 인물이 洪有人이다. 홍유인은 谷雲 金壽增(1624~1701)의 外孫으로 김창립과 함께 김창협의 문하에서 배웠다. 김수증은 김수항의 형으로서 관직에 환멸을 느껴 화친의 곡운에 은거하여 독서에 몰두한 당대의 학자였다. 김창립과 홍유인은 외척간이었으나 나이가 비슷하여¹⁰⁾ 동문수학하였으며 김창협은 이 둘을 특별히 사랑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김창협보다 먼저 죽었다.

막내 아우 창립과 仁甫(홍유인의 자)는 나이도 비슷하고 뜻이 합하여 우리나라의 詩道가 퇴락한 것을 개탄하여 한 번 떨치고자 하여 드디어 중택재라는 詩社를 세우고 여러 선비들과 그곳에서 재능을 연마하였다. …(중략) … 아우가 갑자기 죽은 뒤로는 인보는 짝이 없어 다시는 시를 짓지 않았다.¹¹⁾

계해년(김창립이 죽은 해)에 막힌 심사도 여기에 반쯤은 차지고 있었다. 仁甫가 잠깐 이르러 무릎을 맞대고 앉아 눈물을 씻고 보면 완연히 卓爾(김창립의 자)가 있었으니, 보면 낮고 보지 못하면 아픈 하였다.¹²⁾

9) 金昌翁, 『三淵集』 卷26, <金秀才傳>. ‘獨喜與其友洪有人兪命岳及市人崔東標.’
10) 김창협이 지은 <洪仁甫墓誌銘>에 의하여 홍유인의 생몰년대를 추정해 보면 김창립의 1년 뒤인 1667에 태어나 1694에 사망하였으니 나이 28세였다.
11) 金昌翁, 『三淵集』 권27, <洪仁甫墓誌銘>. ‘而季弟昌立與仁甫 齒比志合 慨吾東詩道之頽而欲一振之 遂建詩社曰重澤齋 與群彥講藝其中 …(중략) … 而吾弟奄沒 仁甫落然無偶 不復以聲病綴意.’
12) 金昌翁, 『三淵集』 卷26, <金秀才傳>. ‘而癸亥之滯思 居半於是焉 仁甫暫至 則促膝而坐 破涕相看 宛然卓爾在也 相見則瘳 不見則病.’

이러한 관계를 감안할 때 홍유인이 김창립의 유고집 간행을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창협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죽고 난 뒤에 친구들이 그 상자를 열어 수 십 편의 (시를) 얻어 자익(김창흡의 자)에게 나아가 산정을 받고 일찍이 강습하던 방으로 인하여 「澤齋稿」라 이름하였다.¹³⁾

이 기록에 의하면 김창립이 죽자 동학의 친구들이 그의 유고시를 정리하여 일차적으로 김창흡의 산정을 거친 뒤에 「澤齋稿」라는 제목으로 초본을 정리한 것을 알 수 있다. 「澤齋稿」라는 제목이 「澤齋遺唾」로 바뀐 것은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간행하기 직전에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던, 아마도 부 김수항이나 삼형 김창흡일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의해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택재가 남긴 글’이라는 제목보다는 ‘택재가 남긴 침방울’이라는 제목이 더욱 간절하고, 한편으로는 그가 지은 시를 미처 다 수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간행과정에 대하여 김수항이 한 말도 좋은 참고가 된다.

우리 아이가 죽은 뒤 동학 여럿이 지은 것을 모아 書肆活字를 구하여 약간의 책을 인쇄하였다.¹⁴⁾

김수항이 말한 書肆活字는 서사, 즉 개인의 책방에서 사용하던 활자이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도서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校書館의 기능만으로는 민간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사의 개설이 요구되었다.¹⁵⁾ 사실 도서관에서는 민간서적까지 판매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간에 쓸모없이 쌓여 있는 世傳서적까지도 매매하는 서사를 설립함으로써 서적의 보급 부족을 메꾸어 보려는 것이 서사를 설립하려는 동기였다.¹⁶⁾ 이렇게 서사가 설립되고 민간에서 요구하는

13) 「澤齋遺唾」〈墓誌銘〉. ‘既沒 同志祛其篋 得數十篇 就自益刪定 因其所嘗講習之室 而名之曰 澤齋稿.’

14) 金壽恒, 〈澤齋遺唾跋〉. ‘吾兒既歿 其同學諸生 哀錄其所著 鳩得書肆活字 印出若干本.’

15) 朴尙均, 『書誌學散藁』 (민족문화사, 1989), 242.

16) 鄭亨憂, “書肆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朝鮮朝 書籍文化 研究』, 斗筆 鄭亨愚博士 定年紀念

도서의 출간이 가능해졌는데, 김창립의 유고집도 이 서사활자를 사용하여 간행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 서사활자본이 현재 전하지 않아 활자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을 뿐이다.

정리해 보면 김창립의 유고집인 『澤齋遺唾』는 사망 직후 동문의 친구들에 의하여 유고가 정리되었고, 김창흡이 산정하여 『澤齋稿』라는 이름으로 초고가 완성되었으며, 간행 직전에 『澤齋遺唾』로 변경되어 서사활자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2 芸館活字本

『澤齋遺唾』은 1700년에 강화부에서 운관 활자로 다시 인쇄되었다. 이 해에 강화부에서 인쇄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먼저 당시에 극심했던 당쟁으로 인한 정국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庚申大黜陟(1680)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노론은 己巳換局(1689)에 의해 남인이 정계의 전면에 등장하자 노론의 원로들 중 송시열과 김수항이 정계에서 추방되었고 끝내는 賜死되기에 이르렀다. 숙종과 인현왕후, 장희빈이 얽혀 있던 이 시대의 정국은 매우 혼란하였으며 노론과 남인 사이의 당쟁이 반복되던 때였다. 김수항의 죽음은 안동김문에게서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1694년에 발생한 甲戌獄事로 인해 노론은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김수항은 伸冤되었다.

김수항의 장자인 夢窩 金昌集은 갑술옥사 이후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1698년 11월에 江華留守로 부임한다.¹⁷⁾ 그리고 1년 뒤인 1699년(己卯) 12월에 김수항의 문집인 『文谷集』을 간행한다. 김창흡은 <文谷集跋>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찍이 불초 창집이 명을 받아 江都에 머물 때 부지런히 준비하여 운관활자를 얻어 약간의 책을 간행했다.¹⁸⁾

論文集 (九美貿易, 1995), 407.

17) 『肅宗實錄』 32권, 24년(1698 戊寅) 11월 4일(을해) 3번째 기사.

『文谷集』은 김창협과 김창흡이 산정하여 초고를 보관하고 있다가 김창집이 강화유수가 되어 간행할 여건이 조성되자 곧바로 간행하게 되었다. 갑술옥사 이후 김수항의 관작이 회복되고 신원되었으나 그의 자식들이 서둘러 『文谷集』을 간행한 것은 부친과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의도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¹⁹⁾

『文谷集』을 간행한 뒤에 뒤를 이어서 『澤齋遺唾』를 다시 운관활자로 간행하게 되었다. 1684년 서사활자로 간행되었던 것에 仲兄 김창협이 지은 묘지명을 추가하여 다시 운관활자로 간행한 것이다. 이 묘지명은 1695년(乙亥)에 지은 것이므로 시간상 1684년본에는 포함될 수 없다. 이 묘지명을 제외하고는 1684년본의 내용이 그대로 1700년본에 전제되었다. 이처럼 이 가문의 형제들은 『文谷集』을 간행하고 여력을 모아 『澤齋遺唾』를 중간하고, 홍유인의 『蟄窩遺稿』까지 간행함으로써²⁰⁾ 일련의 작업을 마치게 되었다.

1684년본은 서사활자를 사용하여 간행하였으나 1700년본은 운관활자를 사용한 것도 주목된다. 1684년본은 개인의 입장에서 간행해야 했으므로 서사활자를 쓸 수밖에 없었으나 1700년본은 강화유수라는 직책에서 간행을 주도했으므로 校書館의 활자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澤齋遺唾」의 구성 및 내용

현재 전해지고 있는 1700년에 운관활자로 간행된 「澤齋遺唾」는 1冊(33張) 古活字本 28.4×17.9cm. 左右雙邊 半郭: 21.2×22.9cm. 10行 20字 注雙行. 版心: 上下魚尾.²¹⁾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序, 詩, 附錄, 跋 등으로 되어 있는데 부록에는 行狀, 墓表, 墓誌銘, 傳이 포함되어 있고, 발문은 5명이 썼다.

18) 金昌協, <文谷集跋>. ‘曾不肖昌集受命居留江都 粗得拮据 取芸館活字 印出若干本.’

19) 『文谷集』은 3년 뒤인 1702(壬午)에 영광군수 安世徵에 의해 중간된다. 金昌協, 『農巖集』, 卷25, <先集再刊跋> 참조.

20) 「澤齋遺唾」凡例, 참조. 현재 이 책은書目만 전하고 있다.

21) 奎章閣 소장본.

3.1 『澤齋遺唾』序

서문을 쓴 息菴 金錫胄(1634~1684)는 일세를 풍미한 정치가로 당시의 정국을 주도하던 인물의 하나였다. 김석주가 『澤齋遺唾』의 서문을 쓴 것은 김수항의 영향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석주는 이 해에 사망하였고, 서문의 내용에서도 병중에 있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유고집의 서문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갑자년에 한양에 전염병이 크게 있었는데 김창립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여 나도 당시 병중이었는데 조금 나아져서 비로소 영의정 文谷(김수항의 호)공에게 조문하였다. … (중략) … 그 후에 상공이 『澤齋遺唾』라는 시집 한 권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창립의 여러 형들이 그의 주머니에 있던 초고를 모아 기록한 것이다.²²⁾

서문의 내용은 서문을 쓰게 된 경위, 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평가, 요절에 대한 안타까움의 토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서문의 전형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특히 韓愈와 屈原의 고사를 사용하면서 주변의 인물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이는 김수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2 詩

첫 장 첫 줄 상란에 붙여 ‘澤齋遺唾’라 쓰여 있고, 하란에 붙여 ‘安東金昌立卓爾著’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시가 끝난 줄 밑의 여백에 하란에 붙여 ‘澤齋遺唾終’이라 되어 있는데 33장의 판수를 맞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 배열 순서는 詩體와 관계없이 시대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김창흡이 교정한 결과로 인한 것이다.

22) 金錫胄, <澤齋遺唾序>. ‘歲甲子 京師大疫 金生昌立 以疹瘡不起 余時病臥 稍間 始往弔其大人 首揆文谷公 … (中略) … 其後相公 以詩稿一卷澤齋遺唾者示余 卽生諸昆之所攜 取生奚囊中遺草而錄之者也.’

시집으로서의 「澤齋遺唾」를 분석해 보면 가장 주목되는 것은 絶句나 律詩 같은 正格의 작품도 있지만 變格의 시가 많다는 것이다.²³⁾ 이것은 김창립이 추구했던 시의 경지와 관계가 있다. 김창립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배우는 시를 거부하고 詩經의 시나 古風詩를 따르려고 노력했다.²⁴⁾ 이러한 이유로 율격에 맞는 시보다는 파격적인 작품을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수를 예로 들어 본다.

<夜登國師巖> 鳩林國師巖 道說足跡在 夜登見海水 明月照海內	밤에 국사암에 올라 구림마을 국사암에는 도선의 발자취가 남아 있네 밤에 올라 바닷물을 보니 밝은 달이 세상을 비치네 ²⁵⁾
---	---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첫 번째 작품이다. 제목 아래에 협서로 乙卯라 기록되어 있으니 을묘년(1675), 곧 김창립의 나이 10살 되던 해였다. 이 해에 甲寅禮訟 후 남인과 대립하던 김수항은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 이 시기에 김창립이 영암의 월출산에 올라가서 이 시를 지었다. 10세 지은 시는 이외에도 1수가 더 있다. 이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시작에 임했으나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것은 16세부터이다. 17세에 지은 시 한 수를 소개한다.

<憐枯魚> 皇天久不雨 竭我三池水 蓮葉皆枯 魚無所倚	말라 죽은 고기를 가련히 여김 하늘에서 오랫동안 비 내리지 않아 나의 세 연못이 말랐네 연잎도 다 말라 고기가 기댈 곳이 없네
---	--

23) 전체는 85수인데, 이중에 5·7언장구 5수, 5·6·7언 1수, 4언4구 2수, 4·5언 2수, 6언2구 1수, 7언7구 등을 포함하여 오언시나 칠언시의 경우에도 각각 10구, 14구, 20구 등 다양하다. 이러한 변격의 작품이 도합 27수이다.

24) 南龍翼, <澤齋遺唾>. ‘能作古風詩 不欲落於科臼程式 尤酷愛毛詩 至忘寢食.’

25) 「澤齋遺唾」<詩>, <夜登國師巖>.

相處於陸地	서로 땅에 있어
不能中回旋	돌아갈 수 없네
死者長已久	죽은 것은 이미 오래 되었고
生者動可憐	산 것도 움직임이 가련하네
朱鱗魚本在上林園中水	붉은 비늘의 고기는 상림원의 연못에 있던 것
去年得之養我池	지난해 얻어 내 연못에서 키웠네
丹砂作鱗黃金尾	붉은 비늘에 황금꼬리
洋洋得其所	마땅한 곳을 얻은 듯
遊戲蓮葉裏	연잎 아래에서 노닐더니
嗟乎旱如此	아아 이렇게 가물어
朱魚將安如	붉은 고기 어디로 갈까
呼兒命汲水	아이 불러 물 길어오라 해도
泉澤竭已枯	샘과 연못이 모두 말랐다네
安得天下水	어떻게 천하의 물을 얻어
活我池中魚	연못의 물고기를 살릴까

김창립의 시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5언이나 7언으로 구성되는 정형시의 형식을 벗어난 작품으로, 4언구와 5언구, 7언구가 섞여 있으며 10언구도 있다. 그리고 시의 韻字도 몇 차례 바뀐다. 이러한 작품은 한시의 전형적인 형식을 고려한다면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약관의 나이도 되기 전에 이와 같은 파격적인 시를 지었다는 것으로 보아 김창립이 古風詩를 추구하고 배웠다는 주변의 기록을 이해할 수 있다.

<壯遊>

유람

往者吾輩能壯遊	지난 날 우리들 장쾌히 놀았지
華山三日樂莫樂	화산에서 3일 동안 더 없는 즐거움을 즐겼네
西登白雲峯	서쪽으로 백운봉에 올라
俯視洛陽郭	한양의 성곽을 굽어 보았네
臨高臺臨高臺	높은 곳에 올라 높은 곳에 올라
長笛悲歌秋天蒼	구슬픈 피리 소리에 가을 하늘은 아득하니
人生百年忽悲壯	백년 인생사 갑자기 비장해라
笑指北邙行人少	웃으며 북망산을 가리키니 행인이 드물고
嗟乎仁壽峯	아아 인수봉은
造化何其雄	조화가 어찌 그렇게 웅장한가
白雲滿地飛	흰 구름은 땅에 가득 일어나고

滄海去無窮
山花洞葉插滿頭
歌舞山下山影樓

푸른 바다는 무궁하다
산꽃과 잎을 머리에 가득 꽂고
노래하고 춤추며 내려오는데 산그림자가 지네²⁶⁾

이 시는 김창립이 삶의 마지막 해인 18세에 지은 것으로 내용으로 보아 북한산을 유람하면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도 정격의 격식을 갖춘 시라고 할 수는 없다. 대자연의 경치를 읊으면서 인생사의 비장함을 노래하는 젊은 김창립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고시집에는 유일하게 <祭亡姊文>이라는 문장이 하나 실려 있다. 80자로 되어 있는 짧은 글인데, 그가 지은 문장 중에서 유고집에 실린 것은 이것뿐이어서 '詩'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제문의 대상은 李涉에게 출가한 누이²⁷⁾로서 김수항의 6남 1녀 중 하나뿐인 딸이었다. 『農巖集』에는 <祭亡妹文>이 실려²⁸⁾ 있으므로 김창협에게는 누이동생이고 김창립에게는 손위 누이인 것을 알 수 있다. 李氏婦가 죽은 것은 1680년(庚申)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김창립의 나이가 15세였으므로 누이의 죽음이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누이와의 이별이 더욱 슬퍼 이 제문을 지었다고 술회했다.²⁹⁾

이와 같이 『澤齋遺唾』에는 84수의 한시와 1편의 文이 실려 있는데 한시의 경우, 정형을 고려하지 않은 작품이 많은 것이 주목된다. 10세 때에 처음 한시를 지었고, 한시에서 추구하는 바가 남달랐던 김창립의 문학은 주위의 기대를 모았으나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완성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과 친지로부터 깊은 애도를 받았으며,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이 유고시집이 전해지게 되었다.

26) 『澤齋遺唾』 <詩>, <壯遊>.

27) 金昌協, 『農巖集』續集 卷下, <先父君行狀下>.

28) 金昌協, 『農巖集』 권29에 <祭亡妹文>, <再祭亡妹文>, <亡妹遷窆祭文>이 실려 있어 누이의 죽음을 매우 애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29) 『澤齋遺唾』 <詩>, <祭亡妹文>. '昔姊之亡 余在童丱 曾是無幾 我冠而娶 嗟爾生別尙怨.'

3.3 附錄

부록에는 行狀과 墓表, 墓誌銘, 傳이 포함되어 있다. 1684년본 『澤齋遺唾』를 확인해 볼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 부록은 1700년본을 간행하면서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른 기록들은 김창립의 사망 직후에 작성되었으나 묘지명은 11년 뒤인 1695년(乙亥)에 지어졌다. 따라서 1700년본을 간행하면서 이것까지 포함하여 부록으로 묶어 놓았다.

3.3.1 행장

김창립의 일생을 정리하여 행장을 지은 것은 부 김수항이었다. 자손들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家狀이 정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자손이나 지인 중에서 문장력이 있는 사람이 행장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그런데 김수항은 亡子를 위해 직접 행장을 지었으니³⁰⁾ 이것도 매우 드문 일인 것으로 보인다. 『文谷集』에는 이 외에도 <祭亡兒文>, <祭亡兒墓文>, <亡兒小祥前一日祭文> 등이 실려 있어³¹⁾ 김수항의 슬픔이 지대했음을 보여 준다. 김수항이 가눌 수 없는 슬픔을 견디며 행장을 지은 것은 오직 명망 있는 인사에게 墓文을 부탁하기 위함이었다.

살아서 이미 그 재주를 다하고 뜻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죽어서 후대에 전해지
는 것이 없다면 어찌 거듭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원컨대 大君子의 한 말씀의
혜택을 얻어 묘석에 새김을 불후의 계책으로 생각하여 이에 감히 슬픔을 억누르
며 붓을 적신다.³²⁾

김수항의 의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당대의 대가인 尤庵 宋時烈이 墓表를 썼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이 유고집의 발문도 지었는데 진행 과정을 추측해 보건대,

30) 『文谷集』 권 22에 이 글이 <亡兒行狀>이라는 제목으로 전제되어 있다.

31) 『文谷集』 권24.

32) 『澤齋遺唾』 <行狀>. ‘生既不獲究其才而充其志 沒又泯泯無傳於後 則豈不重可哀也 願得大君子一言之惠 銘之墓石 以爲不朽之圖 茲敢抑哀泚筆.’

김수항이 송시열에게 묘표와 발문을 부탁하고, 그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행장을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3.3.2 묘표

이 글은 송시열이 지었다. 송시열은 김수항이 지은 행장을 보고 슬퍼서 이 묘표를 짓게 되었음을 밝혔다.³³⁾ 일반적인 묘표의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묘표는 1684년(甲子) 5월에 지었는데 그가 「澤齋遺唾」의 발문을 지은 시기와 일치한다.

3.3.3 묘지명

김창립의 사후 7년째 되던 해인 1689년(己巳)에 발생한 己巳換局으로 인해 안동김문은 큰 고초를 겪게 된다. 이 해 윤3월에 김수항이 사사되었는데, 죽기 전에二子 김창협에게 김창립의 묘지명을 지을 것을 요구했다.

(창립이) 죽은 뒤 7년이 되어 기사환국의 화가 있었다. (부친께서) 화를 당하던 날에 나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의 묘에 내가誌石을 세우고자 한 것이 오래 되었는데 너무 슬퍼 글을 지을 수 없었다. 이제 (명을) 마치게 되었으니 네가 마땅히墓誌를 마치도록 하라”고 하였다. 내가 눈물로 그 명을 받았으나 슬픔이 더욱 심하여 글을 지을 수 없었다가 또 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³⁴⁾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김창협이 이 묘지명을 지은 것은 사후 12년 만인 1695년(乙亥)이다. 이때는 1년 전의 甲戌獄事로 안동김문이 다시 가세를 회복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김창협이 묘지명을 지었다는 것은 이로부터 4년 뒤에

33) 「澤齋遺唾」〈墓表〉. ‘余又悲文谷語 識其墓如此.’

34) 「澤齋遺唾」〈墓誌銘〉. ‘死後七年 而有己巳之禍 禍之日 先君子顧於昌協曰 而弟之墓 余欲誌焉久矣 顧哀甚不能文 今已矣 汝宜卒誌之 昌協既涕泣受命 而哀益甚 愈不能文 蓋又七年 始克敘.’

행해진 1700년본의 간행과 함께 살펴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아마도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문집의 편찬과 간행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4 傳

부록에 실린 문장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傳³⁵⁾이다. 이것은 삼촌 김창흡이 지은 것으로 김창립의 인품과 행적, 시학의 과정을 가장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다. 김수항이 행장을 지으면서 이 전이 있음을 말했으니 어느 정도 참고했을 것이다. 김창흡은 김창립을 직접 가르친 스승의 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澤齋遺唾』의 刪定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김창립의 진면목을 잘 아는 사람이 김창흡이었으므로 그가 아우이자 제자의 사후에 지은 이 傳이야말로 김창립의 일생을 증언하는 의미 있는 자료인 것이다.

이 문장은 도입부, 행적부, 哀章 등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은 도입부로서 김창립의 家系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고, 다음은 행적부로서 김창립의 짧은 인생 중에서 전할 만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행적부에는 학문과 시학에 뜻을 두고 배우기 시작한 경위와 진행 과정, 인간적인 면모, 1684년본이 간행된 과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가장 강조하여 기록한 것은 시학에 대한 김창립의 견해를 나타낸 부분이다.

인하여 지극히 國風과 雅의 원류와 옛것과 지금, 雅와 (음탕한 노래인) 鄭나라의 시가 구별되는 까닭을 논하면서 말했다. “시가 시가 되지 못한 것이 오래 되었다. 고려의 비루함을 조선이 이어받아 거친 것이 천백 년이나 되었고 바르게 시작하는 길이 막혔다. 요즘 겨우 옛것을 아는 자가 鄭斗卿 한 사람뿐인데 안타깝게도 그 무리들은 옛날의 자취에 빠져버림으로써 초월하여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무릇 시라는 것은 바로 투철하고 영롱한 것이니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은 정밀하게 생각하고 오묘하게 운용하는 것에 있지 않다.” 듣는 자들이 깨닫지 못함이 없었다.³⁶⁾

35) 이 글은 『三淵集』 권26에 <金秀才傳>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36) 『澤齋遺唾』 <附錄>, <傳>. ‘因極論風雅原流及古今雅鄭之所以別曰 詩之不爲詩久矣 高

김창립은 國風과 雅, 즉 시경의 시가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경의 시를 돌아보지 않으므로 고려에서부터 당시까지의 시단이 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립은 시에서 중요한 것이 투철과 영롱이라고 하여 시의 음악성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시경시의 영향이다. 특히 정두경(1597~1673)을 인정하면서도 비판한 것이 주목된다. 정두경은 東洲 李敏求(1589~1670)와 함께 당대의 시단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대가로서 중국의 문인들과 비교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은 시인이었다.³⁷⁾ 그런데 김창립이 이렇게 비판한 것은 시학에 대한 그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傳의 일반적인 구성은 도입부, 행적부에 이어 전을 짓는 자가 대상인물의 일생을 평가하는 論評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김창흡은 논평 대신 아우를 추모하며 지은 5수의 시를 실었다. 이 시는 「三淵集」 卷2에 <哭弟昌立八哀>라는 제목으로 8수의 애도시가 실려 있으므로 원래 8수를 지었는데 그가 유고시집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5수만을 수록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澤齋遺唾」의 최종 편집자가 김창흡이었음을 알 수 있다.

3.4 跋

「澤齋遺唾」의 발문은 5건인데, 김수항, 김창흡, 송시열, 남용익, 김만중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약관의 나이에 세상을 마친 사람의 문집에 이렇게 이름 있는 문인들이 발문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김수항의 발문은 그가 지은 행장에 비해 슬픔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 유고시집이 간행된 의의를 설명하고자 했다.

내가 이미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치게 하지 못하고, 이 책에 이렇게 글을

麗之陋 我朝仍之 莽莽千百年耳 正始之路堙焉 獨稍知有古者 近鄭斗卿一人耳 惜乎 其徒泥陳跡 不能超津筏而上之 夫所謂詩 正欲其透徹玲瓏也 我輩之所宜勉 其不在靜思而妙運乎 聞者莫不醒然!

37) 閔丙秀, 「韓國漢詩史」(太學社, 1996), 335.

쓴다. 아아, 내거 어찌 이것으로 불후의 자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으며 또한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과장하여 아름답게 여기겠는가. 다만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뜻이 있었음을 알게 하고 싶을 뿐이다.³⁸⁾

김수항의 생각은 비록 일찍 생을 마쳐 아쉽기는 하지만 김창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가 이러한 시를 지어 놓았으며, 이러한 뜻이 있었다는 것이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란 것이다.

김창흡이 실질적으로 이 유고시집을 간행하고자 한 것도 김수항의 생각과 동일하다.

오호라, 이것은 죽은 우리 아우가 남겨 놓은 것이다. 쓸쓸하기가 이와 같으면 서도 차마 버릴 수 없는 것은 진실로 그 뜻이 사라지고 가려지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중략) … 그러나 우리 아우가 이것을 안다면 죽은 혼백이라도 반드시 빠진 것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이것은 그의 뜻과 기량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니 평생 진실로 그러한 것이 있다. 지금에 있어서 내가 (간행을 주도한) 몇몇 제자들과 함께 끝없이 애도하는 것도 이것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다. 아니면 세상의 문인들이 이것을 보고 그 빠른 발걸음을 따라 밟으며 “汗血馬를 모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실로 불후하게 되는 것이다.³⁹⁾

김창흡이 『澤齋遺唾』을 간행한 의도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아우를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가까이 있는 자들의 위안을 삼기 위함이며, 또 하나는 김창립의 시가 세상에 전해짐으로써 그의 존재를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의도는 문집 발간의 근본적인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문집의 발간에는 여러 가지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澤齋遺唾』는 비록 單卷이고 수록 내용도 풍부하지 않으나 문집

38) 『澤齋遺唾』〈跋〉. ‘余既不能止諸生之役 而又自爲書其卷如此 嗚呼 余豈以此爲可以不朽兒也 亦非敢張大過美於人也 只欲使後之人 知其志之所存.’

39) 『澤齋遺唾』〈跋〉. ‘嗚呼 此吾亡弟之碎金也 寂寥如此 而不忍遺棄者 誠不忍其志之湮晦也 … (中略) … 然而使吾弟而如此 則長逝者魂魄 必且自視缺然 是其志量之難足 自生平固有然者矣 在今吾與二者之寄悼於無窮者 捨是則無焉 抑亦有世之大雅 借寓目焉 跡其步驟而曰 爲汗血之馭 則是固不朽之也.’

으로서의 엄연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송시열의 발문을 살펴보면 김창립의 요절을 안타까워하고 김수항을 위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송시열은 아들을 잃고 애통해 했던 朱子의 예를 거론하면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임을 말했다.

내가 들으니 文谷 상공이 막내아들 창립을 위해 곡하는 것이 오래될수록 더욱 심해진다고 하여 처음에는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유고를 보고난 뒤에 그 고통이 마땅히 애통할 것임을 더욱 알았다. 그의 나이는 18세라고 하며, 유고에 실린 것은 다 이전에 지은 것이라고 한다. 만약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을 마칠 수 있게 했다면 어찌 측량할 수가 있겠는가. 오호라, 안타까울 뿐이다, 안타까울 뿐이다.⁴⁰⁾

송시열의 말을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고를 읽고 난 뒤에 느낀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공감을 갖게 한다.

남용익의 발문은 발문으로서의 구성과 내용을 가장 잘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남용익은 김수항이 발문을 부탁하고 그에 응하여 쓰게 된 과정을 말하였고, 이어 「壺谷詩話」라는 비평서를 지은 시인답게 김창립의 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내가 공경히 받아서 일을 마치게 되었다. 그 言辭는 비록 간결하고 발길은 나아감이 없으나 바탕은 이그러지지 않은 璞玉같고 성조는 아직 조화를 이루지 못한 봉황의 새끼같아서 천연스럽게 뛰어나며 離騷와 古詩選, 樂府의 체를 다 갖추었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가정의 공부에서 나왔다. … (중략) … 만약 나이를 더 빌릴 수 있었다면 그 진보를 어찌 측량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멀고 가까운 곳에 일삼는 것이 또한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지나침이 있을 것이다.⁴¹⁾

40) 「澤齋遺唾」〈跋〉. ‘余聞文谷相公哭季子昌立 久而愈甚 始以爲過矣 及見所示其遺稿 然後益知其哭之宜慟也 其得年之十八 則其稿所錄 皆以前所作也 使其卒有所究則何可量也 嗚呼 其可惜也已 其可惜也已.’

41) 「澤齋遺唾」〈跋〉. ‘余敬受而卒業 則其辭雖簡 其步無前 質未虧之璞玉也 聲未調之雛鳳也 天然秀色 悉具騷選樂府之體 而泝其源則皆出於庭聞退學 … (中略) … 倘假以年 其進何可量 而以志遠邇所事 亦必有大過人者矣.’

남용익은 김수항과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다. 이러한 이유로 발문을 지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 지나치게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용익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고시집의 내용을 분석하고 여기에 덧붙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발문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만중의 발문은 자신의 경험과 대비하여 서술함으로써 또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

나는 힘이 약하여 세속을 바로잡지 못하고 또 근체시를 지을 수도 없다. 때때로 억지로 한두 개를 지어보지만 곧 스스로 웃으며 “이것이 어찌 시라고 할 수 있느냐”라 하고 드디어 초고를 불태워 없애고 입으로 다시는 시를 말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20년이 지나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비로소 이 시집을 보았다. 대개 그 사람이 침착하고 용기가 있으며 시를 지움에 옛 것을 배우는데 침예하였고 시속에 합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법으로 삼은 것은 모두 악부와 이소와 고시선에 벗어나지 않았으며 거슬러 올라가면 詩經 삼백 수였다.⁴²⁾

김만중은 과거를 보기 위해 준비하는 시와 관리들이 상투적으로 짓는 시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끝내는 스스로 지은 초고를 없애고 다시는 시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김창립의 시가 오직 옛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문에 밝혔다.

이처럼 『澤齋遺唾』의 발문은 각각의 특징이 있다. 김수항과 김창흡의 발문은 父兄으로서 김창립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의도를 발문에 밝혔고, 송시열과 남용익, 김만중 등은 유고를 일고난 후의 느낌과 안타까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발문으로서의 의의를 갖추었다.

42) 『澤齋遺唾』〈跋〉. ‘余力弱 既不敢矯俗 又不能爲近體詩 時或強作一二語 輒自笑曰 此果何以爲詩邪 遂焚棄草稿 口不復言詩矣 自是又二十年 余髮已種種 而始得是編焉 蓋其爲人沈靜而有勇 故其爲詩銳於學古 而不求合於時俗 所取法 舉不外於樂府騷選 泝而至於周詩三百.’

4. 「澤齋遺唾」의 특징 및 결론

「澤齋遺唾」는澤齋 金昌立(1666~1683)의 유고 시집이다. 이 문집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18세에 요절한 인물의 문집이 사후 1년 만에 간행되었으며 序跋을 쓴 인물들이 당대를 대표하는 명사들인 息菴 金錫胄, 文谷 金壽恒, 三淵 金昌翁, 尤庵 宋時烈, 壺谷 南龍翼, 西浦 金萬重 등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김수항과 김창흡은 가족관계였으나 나머지 인물들이 이처럼 하나의 문집, 그것도 18세에 생을 마친 자의 문집에 대하여 동시에 序跋을 짓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김창립은 명문가인 안동김문 출신으로 소위 ‘六昌’으로 불리는데 어려서부터 재기가 탁월하였으나 일찍 죽음으로써 가족과 주변에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부형들이 김창립의 존재를 알고자 서둘러 이 유고집을 간행하게 되었다.

김창립의 사후 동문인 洪有人, 兪命岳, 崔東標 등이 유고집의 발간을 추진하였고, 김창흡이 그것을 刪定하여 이듬해에 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의 문집 간행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그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경우이다. 그 이유는 당시에 김수항이 영의정으로 재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서발에 일류 명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초인본은 1684년에 서사활자를 사용하여 간행하였다.

그리고 1700년에 강화부에서 운관활자로 다시 간행되었다. 극심한 정쟁 속에서 甲戌獄事로 인해 다시 정권을 장악한 노론의 안동김문은 김수항의 장자인 夢窩 金昌集이 1698년 11월에 江華留守로 부임하고 그리고 1년 뒤인 1699년(己卯) 12월에 운관활자로 김수항의 문집인 「文谷集」을 간행하였고 이어서 1684년에 간행되었던 서사화활자본에 仲兄 김창협이 지은 묘지명을 추가하여 운관활자로 간행하였다.

「澤齋遺唾」는 單卷一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략을 살펴보면 序, 詩, 附錄, 跋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록에는 行狀, 墓表, 墓誌銘, 傳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을 쓴 息菴 金錫胄(1634~1684)는 일세를 풍미한 정치가로 당시의 정국을

주도하던 인물의 하나였다. 김석주가 『澤齋遺唾』의 서문을 쓴 것은 김수항의 영향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석주는 이 해에 사망하였고, 서문의 내용에서도 병중에 있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유고집의 서문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시집으로서의 『澤齋遺唾』를 분석해 보면 가장 주목되는 것은 絶句나 律詩 같은 正格의 작품도 있지만 變格의 시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창립이 추구했던 시의 경지와 관계가 있다. 김창립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배우는 시를 거부하고 詩經의 시나 古風詩를 따르려고 노력했다.

이 유고시집에는 유일하게 <祭亡婦文>이라는 문장이 하나를 포함하여 84수의 한시가 실려 있다. 10세 때에 처음 한시를 지었고, 한시에서 추구하는 바가 남달랐던 김창립의 문학은 주위의 기대를 모았으나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완성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과 친지로부터 깊은 애도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이 유고시집이 전해지게 되었다.

부록에는 行狀과 墓表, 墓誌銘, 傳이 포함되어 있다. 김창립의 일생을 정리하여 行狀을 지은 것은 부 김수항이었다. 자손들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家狀이 정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자손이나 지인 중에서 문장력이 있는 사람이 행장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그런데 김수항은 亡子를 위해 직접 행장을 지었다.

묘표는 송시열이 지었다. 송시열은 김수항이 지은 행장을 보고 슬퍼서 이 묘표를 짓게 되었음을 밝혔다. 일반적인 묘표의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묘표는 1684년(甲子) 5월에 지었는데 그가 『澤齋遺唾』의 발문을 지은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볼 때 김수항의 부탁에 의해 두 글을 동시에 지었다.

묘지명은 김창협이 1695년에 지었다. 김수항은 죽으면서 김창협에게 묘지명을 부탁했는데 12년이 지나서야 묘지명을 지었다. 이것은 정쟁의 와중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부록에 실린 문장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傳이다. 이것은 三兄 김창흡이 지은 것으로 김창립의 인품과 행적, 시학의 과정을 가장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다. 김수항이 행장을 지으면서 이 전이 이미 있음을 말했으니 어느 정도 참고했을 것이다.

김창흡은 김창립을 직접 가르친 스승의 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澤齋遺唾」의 刪定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김창립의 진면목을 잘 아는 사람이 김창흡이었으므로 그가 아우이자 제자의 사후에 지은 이 傳이야말로 김창립의 일생을 증언하는 의미 있는 자료인 것이다.

「澤齋遺唾」의 발문은 5건인데, 김수항, 김창흡, 송시열, 남용익, 김만중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약관의 나이에 세상을 마친 사람의 문집에 이렇게 이름 있는 문인들이 발문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김수항의 발문은 그가 지은 행장에 비해 슬픔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 유고시집이 간행된 의의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의 생각은 비록 일찍 생을 마쳐 아쉽기는 하지만 김창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가 이러한 시를 지어 놓았으며, 이러한 뜻이 있었다는 것이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란 것이다. 김창흡이 실질적으로 이 유고시집을 간행하고자 한 것도 김수항의 생각과 동일하다.

「澤齋遺唾」의 발문은 각각의 특징이 있다. 김수항과 김창흡의 발문은 父兄으로서 김창립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의도를 발문에 밝혔고, 송시열과 남용익, 김만중 등은 유고를 읽고난 후의 느낌과 안타까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발문으로서의 의의를 갖추었다.

이 문집의 간행 의도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아우를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가까이 있는 자들의 위안을 삼기 위함이며, 또 하나는 김창립의 시가 세상에 전해짐으로써 그의 존재를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의도는 문집 발간의 근본적인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문집의 발간에는 여러 가지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澤齋遺唾」는 비록 單卷이고 수록 내용도 풍부하지 않으나 문집으로서의 엄연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金昌翁. 「三淵集」.

金昌協. 「農巖集」.

金昌立. 「澤齋遺唾」.

「肅宗實錄」.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6.

朴尙均. 「書誌學散藁」. 민족문화사, 1989.

안대회. 「18세기 한시사 연구」. 소명간행, 2002.

鄭亨憂. “書肆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朝鮮朝 書籍文化 研究」. 斗筆 鄭亨愚博士
定年紀念論文集. 九美貿易, 1995. 381-400.